

美家政學會에 參席하고

—After Having Been Attended the AHEA—

會長 金 樂 信
Nak Sin, Kim

1968年度 美國家政學會는 Minnesota 州의 Minneapolis 에서 6月24일부터 6月 28일까지 열렸었다. 그러나 사실상 프로그램은 22일부터 29일까지 꼭 차 있었다.

全國에서 5,000名의 會員이 雲集하여 왔었기 때문에 Minneapolis 市는 온통 家政學會로 인한 祝祭 氣分으로 들떠 있었다. 市街도 商店도 食堂도 家政學會에 온 會員과 손님들로 붐벼 있었다.

호텔은 큰 호텔 셋이 미리 豫約되어 있었고 會議場所는 모든 施設이 갖추어지고 規模가 큰 Convention Hall 이었으며 taxi 를 타면 운전수가 먼저 Convention Hall 이냐고 물을 程度였다.

登錄場所에 들어서니 여러 줄의 長蛇陣이 먼저 눈에 띄고 그밖에 많은 사람으로 번잡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第二日의 풍경이니 第一日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나도 登錄을 마치고 가슴에 커다란 이름표를 붙이고 案内者를 따라 문에 들어서니 방이 아닌 넓고 긴 복도였고 한참 가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그 옆의 큰 방은 코오트類가 많이 걸려 있었는데, 받는 사람도 영수표도 없고 사고도 없다. 에스컬레이터로 二層에 가서 구부러진 복도를 가니 여기가 바로 本會議場所이다. 몇 萬名을 收容할 수 있는 圓形의 階段式 호울이고 中央과 前面 두 곳에 큰 舞臺가 있었다. 正面 舞臺에 主催者 幹部를 5,6名과 主題 講演을 맡은 男子분이 앉아 있었다. 주제는 “Utilizing Our Strengths in Service to Families” 이었고 主題講演이 끝난 후 나는 展示場으로 가서 求景을 하고 오니 外國에서나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앞에 앉으라고 하기에 앞줄에 玄教授와 같이 앉아 있었더니 일일이 國籍과 이름을 부르고 紹介를 해 주는 것이었다. 인도, 일본, 기타 外國에서도 몇 名 와 있었다. 國際家政學會도 아닌데 外國人도 많이 와 있다고 생각되었으며, 우리는 이 會에 加入하려면 個人資格으로밖에 안되겠기에 入會는 얹고 손님 노릇만 하였다.

다음은 여러 종류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는 사람 또는 博士過程을 하는 사람 등에 支給되었다. 몇 千弗씩의 장학금이 수십 명에게 支給되는 美家政學會, 보는 것, 듣는 것이 모두 부럽기만 하였다.

다음은 各分科로 나뉘 미리 準備된 小講堂에서 發表講演이 있는 후 討議에 들어가곤 하

었다. 同時에 여러 分科 討議가 있기 때문에 會員들은 自己 선택에 따라 듣는 것이다.

이 會期中에 特記할 것은 우리나라 産業博覽會나 貿易博覽會를 방불케 하는 큰 展示場이다.

衣, 食, 住, 兒童保育, 保健衛生, 其他 家政科 全般에 걸친, 즉 「生活品」 全般의 展示場이다. 그 큰 規模, 많은 商品, 해마다 달라지는 새 아이디어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生活品들이 가지각색으로 展示 또는 宣傳되고 있는 것이다. 家政科 敎育에 必要한 書籍, 視聽覺 敎材도 登場하고 있어 敎育方法도 시사되고 있었다.

여기를 한번 지나간 會員들은 코오피, 주우스, 콜라, 茶 등도 곳곳에서 試食할 수 있고 나올 때는 見本들이 든 아름다운 주머니들을 들고 나오곤 하였다.

새로 構想된 unit kitchen, 냉장고, 세탁기, dish washer, 기타 便利한 家庭用品의 새로운 것이 많이 陣列되어 있는 곳에서는 무거운 擔줄이 내려 내뭍을 움직여 주지를 않았다.

全國에서 온 500餘 店舖가 各各 自己네 物件을 家政學會를 통해, 會員들을 통해서 宣傳하는 것이었다.

美國內 어디를 가나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풍유한 나라, 規模가 큰 나라라는 것을 느꼈지만 家政學會總會를 보고 다시금 느끼고 體驗하고 더욱 感銘을 깊게 하였다.

짧은 言語 關係로 내 自身도 모르고 지나온 것이 많기 때문에 좀더 仔細히 紹介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음 面에 신는 會期間의 프로그램을 紹介함으로써 參考資料를 제공코자 합니다.